

전북 기업 환경에 전 세계 경제인 집중

김관영 도지사, 글로벌 경제인들 앞에서 전북의 투자환경 설명·기회 어필 세계 한인 경제인들, 전북의 세심한 투자 지원책·성장 가능성에 '큰 호응'

"전북에 오시면, 기업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제22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에서 글로벌 한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설명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대회 마지막 날인 24일, 전북대 진수당 기인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재외 한인 경제인 100여 명이 참석해 전북 특별자치도, 새만금, 전주의 뛰어난 기업 환경을 소개받았다.

이 자리에서 전북이 제공하는 성공적인 투자 기회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글로벌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예정된 담당 실과장을 대신해 직접 단상에 올라 기업인들에게 전북의 투자환경을 생생하게 설명했다.

김 지사는 과감한 특례 도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외 경제인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다. 김 지사의 진정성 있는 피력은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북 투자 기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다.



24일 전북대 진수당 기인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주최로 글로벌 한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투자 설명회에 김관영 도지사가 재외 한인 경제인 100여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등 전북의 뛰어난 기업 환경을 소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는 고상구 세계한인회 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김점배 아프리카·중동 한상연합회, 윤희 아시아 한상연합회장,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장 등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기업인들은 1기업·1공무원 전담제와 같은 전북의 세심한 지원 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특히 민선 8기 이후 이차전지 분야에서 1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새만금의 비약적인 성장에 주목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인센티브와 함께 기회발전특구 지정, 노사평화 등 안정적인 매력적인 전북의 투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전주시 역시 이번 설명회에서 수소·탄소·드론산업, 문화 및 관광산업 등 다양한 투자 기회를 소개하며, 올 하반기 분량을 앞둔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투자 성공 사례로 발표된 동우화인켄(주) 임승훈 상무와 로알캐논코리아(유) 이수지 상무는 전북의 우수한 입지 조건, 편리한 교통 인프라, 풍부한 인적 자원,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각종 투자인센티브에 대해 극찬했다. 전북의 투자 환경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의 기업들과 재외 한인경제인들이 함께 더 큰 성공을 거두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더욱 활발한 협력이 이어져 눈에 띄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투자환경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를 소개하게 되어 기쁘고, 국내외로 힘쓰고 계신 한인대표 여러분이 세계로 승승장구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 성료

36개 기업 참여, 250여명 채용 목표로 구직자 1000여명 몰려 현장 면접부터 공공정책까지 다양한 부스로 취업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도내 28개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우수 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며, 36개 기업이 250여 명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참여했다. 약 1,000여명의 구직자들은 페스티벌에 참가해 다양한 취업 정보를 얻고 현장 면접에 응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전에는 신중년을, 오후에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부스를 운영하며 채용설명관, 공공정책관, 취업컨설팅관 등 50개 부스를 통해 다채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비나텍, 하림, 효성첨단소재 등 도내 유수의 기업들도 채용설명회와 현장 면접을 진행해 구직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의 연계를 통해 도내 구직자들에게 해외 인턴십 기회를 소개하고, 광주 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보훈 대상 제대군인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을 넘어선 다양한 일자리 정보가 함께 제공되었다.

이번 페스티벌에 참가한 참관대인사 담당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우수 인재를 만날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직자 이도 씨는 "도내에도 탄탄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양한 부스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주)아이비스, (주)종립파마텍, (주)디에스단식 등 우수 기업과 공무원 15명이 표창을 받았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페스티벌이 구직자와 기업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매칭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와 우호협약 논의

도·서부 수마트라주, 내년 우호협약 체결 앞둔 사전 논의...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서부 수마트라주 4개기업 참가·기업 교류 펼쳐

전북특별자치도는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 대표단이 24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을 방문해 양 지역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체결된 교류의향서를 바탕으로 내년 우호협약 체결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다.

서부 수마트라주 대표단은 오디 조 남디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여 전북을 찾았으며,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 자국 기업들을 격려하는 일정도 소화했다. 서부 수마트라주 기업들이 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참가한 것은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이번 교류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부 수마트라주와의 우호관계 강화를 위해 대표단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25일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대표단을 만나 내년 우호협약 체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력이 양 지역 간



24일 전북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주 대표단이 제22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참가 자국 기업들을 격려한 뒤, 김관영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류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부 수마트라주 대표단은 방문 기간 동안 전북의 주요 기관들을 시찰하며, 교류 확대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들은 임실치즈농협, 지방자치단체개발

원, 스마트팜, 수산기술연구소 등을 방문해 전북의 산업 및 자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탐색할 계획이다.

서부 수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지역으로, 독특한 미

남캐바우 문화와 전통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부터 서부 수마트라주와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 김관영 전북지사의 서부 수마트라주 방문을 통해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서부 수마트라주에 새만금 한글학당을 개설하여 전북 문화를 알리고, 유학생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내년 우호협약 체결을 통해 양 지역 간 우호관계를 공식화하고, 다양한 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국가 간 뿐 아니라 지자체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서부 수마트라주와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지방의교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 '전주 바이오기업 간담회' 개최

전북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 중회의실에서 전주시 바이오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이재 도의원, 서ანი 도의원, 윤세영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과 전주시 바이오 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규모에 따른 맞춤형 R&D 지원, 규제 개선, 패키지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하며, 특히 기업과 기업, 기업과 기관 간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도내에서 시범·검

사·인증을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윤세영 탄소바이오산업과장은 "도는 바이오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라며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모두 소중한 자산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전북도 바이오 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재 도의원은 "전북테크노파크, 지역내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규택 원장은 "바이오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산업분야"라며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무주군 공고 제2024-984호

동방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주민공람 공고

동방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관계도서 내용을 공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획 명: 동방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동방천 일원
- 수립기관: 무주군
- 사업내용: 동방천 하천기본계획(재수립)
- 규 모: L=1,82km

하천명	등급	기 경	종 점	하천연장 (km)
동방천	지방	무주군 원천면 삼곡리 산 62-4번지선 북계동점	무주군 원천면 삼곡리 446-3번지선 원상면 합류점	1.82

2. 공람장소 및 의견청취 기간

- 공람기간: 2024년 10월 25일(금) ~ 2024년 11월 11일(월)까지(14일 이상)
- 공람장소: 무주군청(환경과)
- 관련자료: 하천 평면도, 지적도, 하천구역 조서 등

3. 의견 제출

- 제출기간: 공람 기간 내
- 제출장소: 공람장소와 동일
- 제출방법: 공람장소 및 홈페이지에 비치(게시)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환경과 ☎ 063-320-2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5일 무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대학교
총장 박병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